



임실군이 12일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무대위를 날려준 시원한 도서관 정학을 진행하고 봉헌 가운데 도서관 프로그램 참여한 아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름 피서지 '도서관' 각광

임실군, 무더위 날릴 프로그램 풍성... 독서교실·체험활동 등 다채

임실군이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어린이들에게 책과 함께 하는 시원한 여름을 선사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도서관에서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무대위를 날려준 시원한 도서관 정학을 추진했다.

군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책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독서교실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키로 했다.

먼저 오수면 군립도서관에서는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책과 함께 초록빛 여름나기' 프로그램을 운영,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서관

이용교육과 아이들에게 환경오염 문제와 올바른 환경보호 인식을 심어주는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4일간 열리는 여름나기 행사 기간에는 ▲'환경장 요일' 우렁가 사는 곳이 사막으로 바뀐다? ▲ 지구가 감기에 걸렸어요 ▲ 지구를 죽이는 1호, 지구를 살리는 1호 ▲ 아미존 수종의 편지 등의 체험기와 환경 체험차와 천연 바다뽀시, 천연 일독제 등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학다작 작은도서관에서는 준비한 '나도, 프로그램에!' 어린이 프로그램관을 운영 할 예정이다.

이 교실은 초등 4~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이달 31일부터 내달 18일

까지 총 14회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프로그램 내린 이야기, 게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도서관에서는 작문별 열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10월까지 매일 한차례씩 열매관람과 함께 다작 열매를 만들어 보는 등의 연계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직장인들을 위한 '날로하, 우물쭈물' 교실을 야간 운영 중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여름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책사랑 그 매개체로서 도서관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전효영 기자

순창군, 교통 사각지대 없앤다

쌍치·복흥면 → 정읍행 농어촌 버스 개편

쌍치와 복흥면에서 정읍을 오가는 임순여객 버스가 정읍타이널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돼 쌍치·복흥면민들의 정읍행편에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오는 13일부터 임순여객 농어촌 버스가 정읍타이널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임순여객과 정읍타이널이 협력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흥·쌍치면과 정읍을 오가는 임순여객 버스는 타이널 사물보존대가 해설되지 않아 타이널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근 버스승강장에서 승하차 해 왔었다.

이후인해 쌍치·복흥 주민들은 승강장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갈아가야 했고 승강장 대기까지 무척은 불편화장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감내해 왔다.

황숙주 군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다는 점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군수 주재하에 임순여객과 정읍타이

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양측이 상생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임순여객과 정읍타이널은 군 측의 적극적인 중재를 받아들여 주민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최근 임순여객 타이널 재사용에 뜻을 모았다.

임순여객 정읍타이널 승하차 체계 소의를 위한 쌍치·복흥 주민들은 "그 동안 정읍을 오가면서 타이널에서 버스가 서지 않아 무거운 짐을 지고 이동하는 불편이 컸다"면서 "이번 합의로 복흥과 쌍치면 주민들이 정읍을 오가는데 불편함이 해소돼 기쁘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군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교통편의를 위해 마음먹음을 확대하고 순창~서울고속버스 승차권을 모바일 또는 인터넷에서 사전 예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 계획이다. /순창=이영환 기자



남원시는 12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직 구성을 위해 지난 3일 9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5개위원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공동체 활성화 행정지원 토대 마련

남원시 추진위 5개월간 활동 종료... 시민·시·학교 역할 특화

남원시(시장 이환주)에서는 12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직 구성을 위해 지난 3일 9일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출범 이후 몇 차례의 브론회와 타지역 공동체 활성화 추진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시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공동체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시초를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

는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단행해 지역공동체 담당을 신설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토대를 마련했다.

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이 주도하고 직·간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지난 6월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위 조례가 마중물이 되어 시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지역 소식통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 안전 남원시 9월말까지 '안부 전화'

남원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30℃를 넘는 한여름에 버금가는 폭염 일수가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9월말까지 독거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폭염 시 안전확인이 상시 필요한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1,222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활용해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주1회 이상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광개울·면·동에 4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101명 약 23%의 독거노인상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폭염 기간에는 휴일도 없이 매일 복거 어르신들의 안전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상고온으로 인해 한여름 같은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은 한여름 외출을 삼가 주시길 바라며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무더위 쉼터를 꼭꼭 이용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순창·남원 '의기투합' 우수 농특산물 서울서 홍보

임실군은 전북도 등남부 생활권 우수 농특산물 관측경사를 서울 도봉구 상동 하나포유농센터에서 순창군, 남원시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지역명품개발원 선도사업에 선정된 농촌특화자원활용 MBO사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등남부 생활권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맛, 특색, 이, 오이, 블루베리 등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한다.

행사장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물, 파프리카, 블루베리를 증정해 관측 효과와 브랜드 인지도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오는 16일 삼천 임실군수를 비롯해 조화공동체(임원) 대표 등이 직접 행사장을 방문한다.

대체적인 관측경사를 열고 도봉 교류 활성화와 대도시 판로 개척에 일조할 방침이다.

또한 군의 주요 관공지와 MBO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특히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2017 임실N치즈축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임실=전효영 기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신소득 작물 모색 온힘

순창 농업인학습단체, 해남·원도·고흥 방문... 과수재배 벤치마킹

순창군이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과 함께 급속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소득 작물 찾기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남, 원도, 고흥지역의 아열대 과수로 성공할 농경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고흥 커피마을을 찾아 성공 사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의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고 소득 작물을 발굴해 지역에 정착하고

학습단체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다.

현장교육에서는 방안포 감시로부터 아열대 과수재배기술 및 현황에 대해 배우고 윤희환 감시본부장은 관성작소통을 통한 학습단체 활성화 방안 등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를 찾아 아열대 과수의 특성과 재배 특성들을 배우는 시간도 진행했다.

특히 고흥 커피마을에 위치한 커피 재배농장을 방문해 커피를 통한 6차

산업과 커피 산업 등을 벤치마킹 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군은 지난해부터 농업기술센터 과목영농실증조에 커피나무 400주를 상해 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커피를 통한 6차 산업화에도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다.

이구원 농기센터 소장은 "이번 현장 교육처럼 농업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현장 교육을 진행해 지역 농업의 희망 찾기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환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맨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l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궁로 312(충포리 485-2)

대표 경력

일본인 스키 및 테니스클럽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국제학교 지도자
전국 스키 선수권 대회(국제대회)	일본인 스키 및 테니스 클럽
국제대회 디스킹 및 무술	최후통 기어와 지퍼 기획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코치	수십 년의 스포츠 관련 경력
국가대표 코치 역임	전라북도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코치, 스키 코치	